

교육어¹⁾의 ‘말입니다’, ‘요’와 제주도 방언 {massim}²⁾에 대하여

성 낙 수

1. 서 언

한 지방의 언어를 규명한다는 것은 그 지방민의 생각, 풍습, 사고를 이해함에 기여 됨은 물론, 소탈해 가는 방언의 특질을 보존하는 방편이 되리라고 믿는다.

필자는 그동안 남한 각지를 답사, 방언을 채집하고 분석, 연구하여 수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. 그러나, 이는 단지 일부 방언의 주마간산(走馬看山)에 그치고, 도드라진 실각을 올리지 못했음을 자인한다.

반복 되는 이야기이나 한 지방의 방언을 세부적으로(다시 말하면 어휘, 음운, 형태, 동사 면의 분리 인구, 혹은 그 일부의 인구) 다루느냐 대단위 방언의 체계를 위하여, 통합적인 방법을 택하느냐가 문제이다. 또는 지역 설정에 있어서도 때, 소의 문제는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.

본고는 제주도 방언에 관한 다른 논문을 작성하던 중, 특수한 요소라고 생각 되는 {massim}에 대하여 본고의 필요성을 느끼어, 이와 유사한 적능과 의미를 지녔다고 사료 되는 교육어의 ‘말입니다’와 ‘요’와의 비교 연구를 하게 된 결과이다.

한 지방의 방언은 그 자체로서의 특성과 구조를 가지기는 하나, 타 방언과의 유사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. 왜냐하면 방언 자체는 분석이 가능하나 그 적능과 의미가 불분명할 때, 타지방 방언과의 비교에서 더욱 뚜렷해질 것이기 때문이다.

1) 여기서의 교육어는 모든 방언에 대립 되는 의미로 쓰였다.

2) 이형태(alloform)로 /massi/, /massim/이 사용 된다.

민지 교육어의 ‘말입니다’, ‘요’를 규명하고, 다음 {massim}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.

교육어는 한글 표기로 하고, 방언은 음운(phonemes)으로 기술하려고 한다.³⁾

2. ‘말입니다’의 의미와 직능

인세 대학교 한국어 학당(Korean Language Institute)에서 가르치는 Korean 1에서는,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.⁴⁾

“Noun 말(반쯤 honorific form)입니다’ : ‘말입니다’ literally means ‘It is a word of……’. It can be translated into English as ‘I mean……’, ‘You mean……’ etc. This form is often used to get attention.”

위에서의 설명은 사전적인 해석이다. 그러나, 여기서 논하려는 뜻 가지의 암시가 보인다고 생각한다. 이를 쓰임에 따라 뜻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.

2. 1. {명사 구절} + ‘말입니다’ {부사 구절}

다음과 같은 대화를 살펴 보자.

- (1) a: 이제 샀습니다.
- b: 무엇(을) 말입니까?
- a: 책(을) 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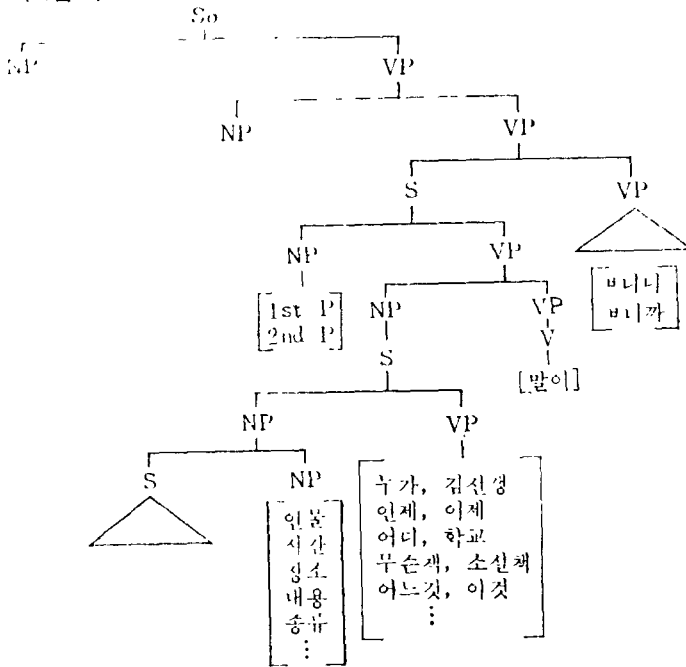
a는 “어제 샀다”는 사실만을 이야기했고, b는 a가 “무엇을 샀는지”가 궁금한 것이다.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, “당신이 이제 샀다는 것(혹은 물건)이 무엇을 의미합니까”가 되며, a의 대답은 “내가 이제 샀다는 것은 책을 의미합니다”와 같은 것이다. 결국 주어와 동결형⁵⁾을 바꾸면 같은 문장 구조가 되는데,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.

3) 이는 민지의 한글표의 표기가 표준어의 그것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며, 음운에는 다른 표기가 한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.

4) Chang Hui Park, Ki Dawk Pak: Korean 2. KLI. 1974. p. 315.

5) ‘말입니다’의 동결형은 서술형(Declarative)과 의문형(Interrogative)에만 나타난다.

<그림 2>



아래의 대화들도 이에 다를 바가 없다.

(12) a: 책을 말입니까?

b: 예, 책을 말합니다.

(13) a: 학교에서 말입니까?

b: 아니요, 회사에서 말합니다.

결국 위에서 말한 형태들에서, '말입니다'는 화자의 발화(utterance) 중에 전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, 청자의 의문의 초점이 되는 것과 그에 대한 대답을 유추해 낸다고 볼 수 있다.

2.2. 연결문1 + '말입니다'

다음의 대화를 살펴 보자.

(14) a: 친구를 만났습니다.

b: 학교에 가는데 말입니까?

a: 예, 학교에 가는데 말합니다.

교육어의 ‘말입니다’, ‘요’와 제주도 방언 {massim}에 대하여 (5)

b의 의문의 촛점은 a가 발화한 내용이 이루어진 [상황]이다. 만약 b의 의문이,

(15) 일요일이어서 말입니까?

었다면, 이 때는 그것이 [이유]로 바뀌어질 것이다.

이와 같이 ‘말입니다’는 모든 연결형 문장과 배합 될 수 있는데 그 때마다 발화의 촛점은 연결형 접미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따라 변하게 된다. 예를 들면,

(16) a: 결혼하겠습니다.

b: 돈을 벌면 말입니까?[조건]

(17) a: 고향에 가겠습니다. 비행기를 타고 말입니다. [방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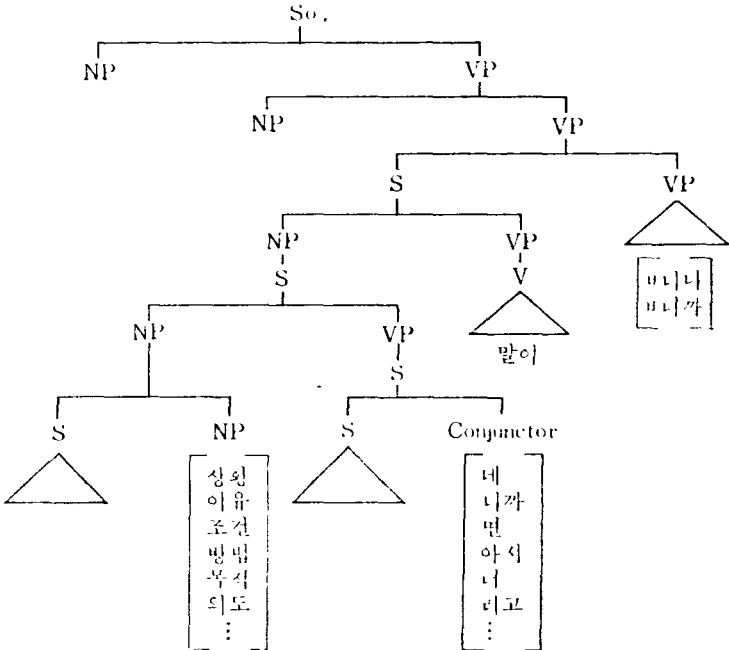
(18) a: 입장권을 샀습니다.

b: 영화를 구경하려고 말입니까?[의도]

(19) a: 백화점에 가야 합니다.

b: 옷을 사러 말입니까?[목적]

<그림 3>



교육어의 ‘말입니다’, ‘요’와 세주도 방언 {massim}에 대하여 (7)

이와 같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나타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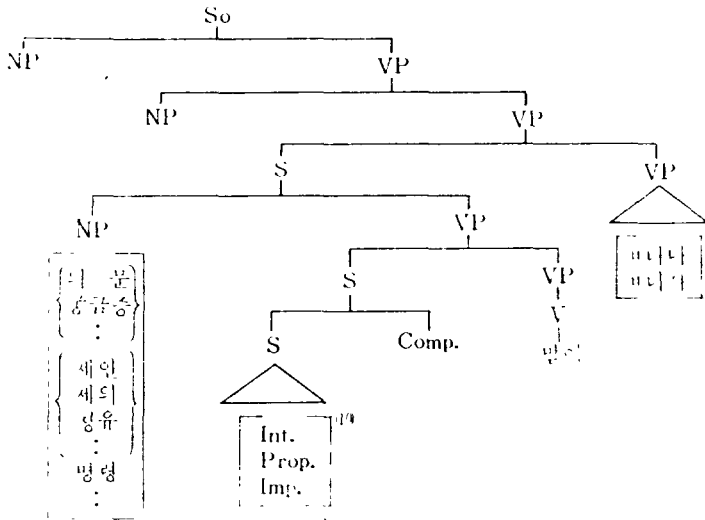
(24) 님이나 공부하느냐(는) 말입니까?

(25) 집에 가자(는) 말입니다.

(26) 밥을 먹으라(는) 말입니다.

(24)의 주어는 화자(혹은 청자, 제삼자)의 [의문, 궁금증……]이며, (25)의 그것은 [제안, 제의, 청유, 권유……]이며, (26)의 그것은 [명령]이다. 이들의 구조를 하나의 그림에 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.

<그림 5>



여기서의 ‘말입니다’는 서술, 의문, 청유, 명령형 보문의 수식을 받는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2.4. 명사+ ‘말입니다’

다음과 같은 대화를 살펴 보자.

(27) a: 김 선생 말입니다.

b: 저 말입니까?

a': 예, 김 선생 말입니다.

11) Int: 의문형 (Interrogative)
 Prop: 청유형 (Propositive)
 Imp: 명령형 (Imperative)

a와 b, a'는 원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즉 b, a'는 2.1.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나, a는 “내가 부르는 사람이 김 선생이다.” 혹은 “내가 김 선생을 부른다.”로 해석 된다. 그러나, ‘말입니다’에 가까운 구조는 전자이다.

같은 구조로 “내가 이야기할 사람은 김 선생이다.”, “내가 강조할 것은 책이다.” 등으로 해석 될 때가 있다. 예를 들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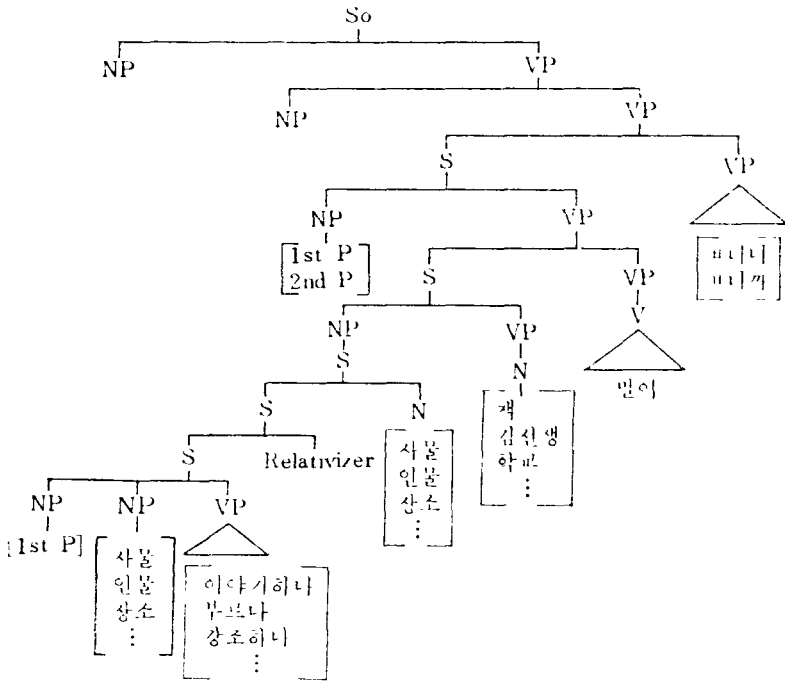
(28) 김 선생 말입니다. 내가 만났습니다.

(29) 이 책 말입니다. 아주 비쌌습니다.

(30) 덩이 말입니다. 불어가 아니지요.

등과 같다.

<그림 6>



2.5. 연결문2+ ‘말입니다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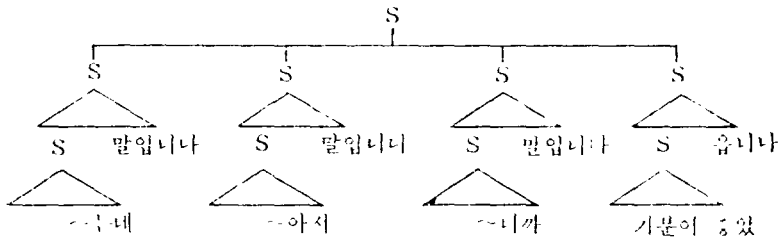
연결형 접미사 (connective suffixes)들로 연결 된 복합문(compound sentence)이 있을 때 각(연결) 문장들을 종결 된 문장으로 바꾸어 말할

교육어의 ‘말입니다’, ‘요’와 제주도 방언 {massim}에 대하여 (9)
 때이다. 즉, ‘말입니다’가 단지 종결 접미사와 같은 기능을 할 경우이다

- (31) a: 학교에 가는데 말입니다.
 b: 친구를 만나서 말입니다.
 c: 커피를 마시니까 말입니다.
 d: 기분이 좋았습니다.

a, b, c, d에서 ‘말입니다’를 제거하고 연결 시키면, “학교에 가는데, 친구를 만나서, 커피를 마시니까, 기분이 좋았습니다.”가 된다.

<그림 7>



3. ‘요’의 의미와 기능

‘요’는 그 쓰임이 아주 복잡하다. 고로 종결 접미사만으로 취급하기에는 비좁은 감이 있다. 배합 관계로만은 ‘말입니다’와 다를 것이 없으나, 그 의미와 기능은 판이하다. 이를 부분 별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자.

3. 1. {명사 구절} + ‘요’ {부사 구절}

다음의 예를 보자.

- (32) a: 어디에 가요?
 b: 학교(에)요.
 (33) a: 만났습니다.
 b: 누구(를)요?
 a': 김 선생(을)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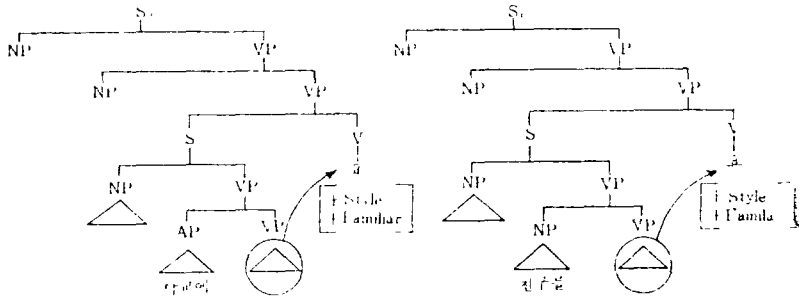
위와 같은 경우는 a에서 서술어가 나왔으므로 b나 a'가 이를 반복한

필요가 없어 이를 생략하고, 명시절 (혹은 부사절)에 ‘요’를 붙여 말한 것이다. 이 때의 ‘요’는 그 생략된 시술어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, 표현 형식을 [+Style, +Familiar]¹²⁾형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.

(32)와 (33)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.

〈그림 8〉

〈그림 9〉



다음과 같은 예들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.

- (34) 네가요.
- (35) 서울에서요.
- (35) 뻘스로요.
- (37) 얼마한테요.
- (38) 미국으로부터요.

3.2. 완형문+‘요’

종결형으로 끝난 완형문에 ‘요’가 첨가 되어 표현 형식만 바뀌는 경우이다.

- (39) 학교에 가요. [시술형]
- (40) 밥을 먹어요? [의문형]

12) 최 현배님에 따르면 ‘하요’계에 해당 된다.
 cf. 최 현배: 우리말본. 김음사. 1936. pp. 309~341.
 박 창배님은 이를 ‘형식 용어의 반말’이라 했다.
 cf. 박 창배: 한국어 구조론 3. 안주어학당. 1967. pp. 89~91.
 전자가 이불 존, 비의 관계로 시리한대 비하여, 후자는 표현의 형식으로 본 것이 다르다.
 최근의 학자들의 견해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.

교육어의 ‘말입니다’, ‘요’의 제주도 방언 (massim)에 대하여 (11)

(41) 커피를 마세요. [청유형]

(42) 빨리 일 해요. [명령형]

위와 같은 문장에서 ‘요’를 제거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된다.

(43) 학교에 가.

(44) 밥을 먹어?

(45) 커피를 마시.

(46) 빨리 일 해.

주지하다시피 (43)~(46)은 소위 “평교 용어의 반말”이다. 여기에 ‘요’가 첨가 된 (39)~(42)는 청자의 태도가 다른¹³⁾, 형식을 갖춘 표현이 되며, 전자에 비하여 부드럽고[Soft]¹³⁾, 친근한[Familiar] 느낌을 준다.

또한,

(47) 학교에 가네요.

(48) 예쁘네요.

(49) 학교에 가세요?

(50) 날씨가 추웠나요?

와 같은 문장에서 ‘요’를 제거하면,

(51) 학교에 가네.

(52) 예쁘네.

(53) 학교에 가세요?

(54) 날씨가 추웠나?

로 이는 소위 “중간 용어”¹⁴⁾에 해당 된다. 뿐만 아니라.

(55) 공부합니다.

(56) 피곤합니까?

(57) 일을 합시다.

와 같은 문장에 ‘요’를 첨가하면,

(58) 공부합니다요.

(59) 피곤합니까요?

(60) 일을 합시다요.

로 또한 표현 형식이 바뀌어진다. 이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

13) 이때는 화자에 비하여 청자가 年上. 上位. 上적이거나, 특별히 형식적인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경우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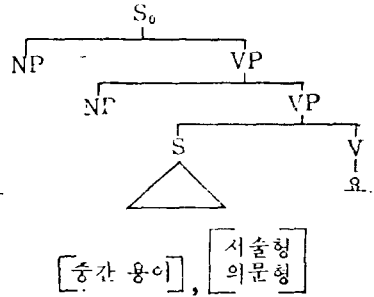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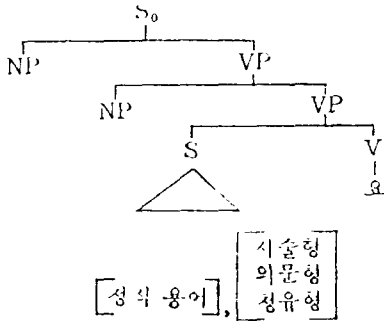
14) 박 창애님은 이런 이유로 ‘요’를 “softner”라 했다.
박 창애 : loc. cit. p. 91.

15) 최 현배님의 ‘하세’제에 해당 된다.
cf. 최 현배 : op. cit., p. 313.
박 창애 : loc. cit., p. 89~9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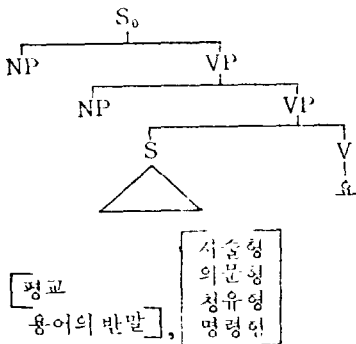
같다.

<그림 10>

<그림 11>



<그림 12>



3. 3. 연결문1 + '요'

3.1은 서술어만 생략하고 쓰는 경우였으나, '요'가 연결형 접미사로 끝나는 문장과 배합 되었을 때는, 먼저 발화 된 문장 전체를 생략하고 나타나게 된다.

- (61) a: 친구를 만났어요.
- b: 학교에 가는데요?
- a': 예, 학교에 가는데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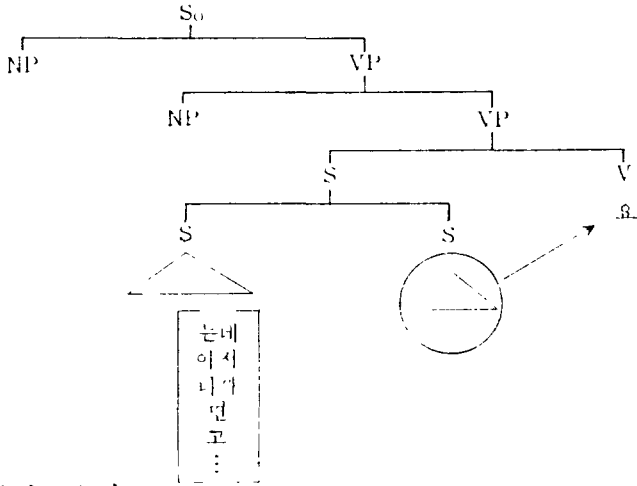
- (62) a: 저는 안 가겠어요.
- b: 왜요?
- a': 어너우니까요.

교육어의 ‘말입니다’, ‘요’와 제주도 방언 [massim]에 대하여 (13)

(61)의 b는 “학교에 가는데 친구를 만났어요?”의 생략형이고, (62)의 a는 “어려우니까 (지는) 안 가겠어요.”의 생략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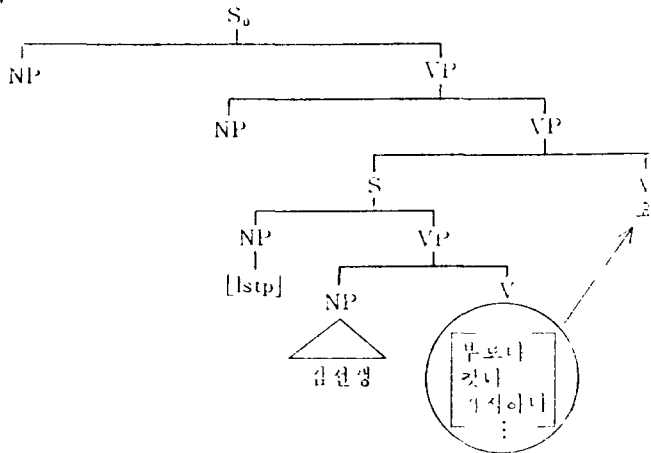
이와 같이 ‘요’는 모든 연결형 문장과 자유로히 배합되어 사용할 수 있는데,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.¹⁶⁾

〈그림 13〉



3. 4. 명사 + ‘요’

〈그림 14〉



16) 연결형 접미사의 자질에 따라 생략되는 문장도 제약을 받으나, 여기서는 이를 다루지 않겠다.

(63) a: 김 선생요.

b: 저요?

(63)의 a는 김 선생을 부를 때, 혹은 김 선생을 찾을 때, 김 선생을 지적할 때이다. 이것은 <그림 14>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.

(64) 이 책요. 김 선생 책입니다.

(65) 사과요. 제가 먹습니다.

(64)~(65)는 화자가 말하려는 대상을 강조하여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. 고로 이 때의 ‘요’는 [+Familiar]의 자질과 [+Emphasis]의 자질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종결 접미사로서의 역할도 전자의 예들과 다름 없이 이행 된다.

3.5. 연결문₂+ ‘요’

2.5와 같이 연결형 접미사들로 연결된 복합문이 있을 때, 각 문장들의 연결형 접미사에 ‘요’가 배합 되어, 완결 된 문장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.

예를 들면,

(66) a: 학교에 가는데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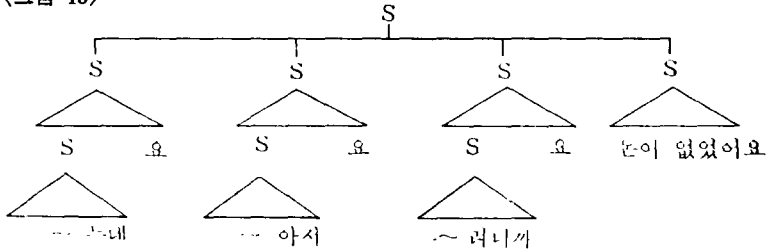
b: 비가 와서요.

c: 택시를 잡으려니까요.

d: 돈이 없었어요.

와 같다. 위의 문장들에서 ‘요’를 제거하고 연결 시키면, “학교에 가는데, 비가 와서, 택시를 잡으려니까, 돈이 없었어요.”가 된다. 이 때의 ‘요’는 단순히 미완결 된 문장을 종결형으로 바꾸는 역할만을 한다.

<그림 15>



4. {massim}의 의미와 직능

제주도 방언에서 교육어의 ‘정식 용어’에 해당 되는 표현 형식은 {-ipnita}형과 {-suta}형과 {-massim}형이 있다. 이들은 각 각 형태론적(morphological)인 차이점 뿐만 아니라 통사론적(syntactic)인 면에서도 상이한 구조를 가진다. 이에 대하여는 다른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

여기서는 {massim}에 대하여 몇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자.

4.1. 명사 + {massim}

(67) a: {i kə əlmamassim\}

b: {pak wənmassim\}

위와 같은 대화를 교육어로 고쳐 보면,

(68) a: 이 거 얼마입니까?

b: 백 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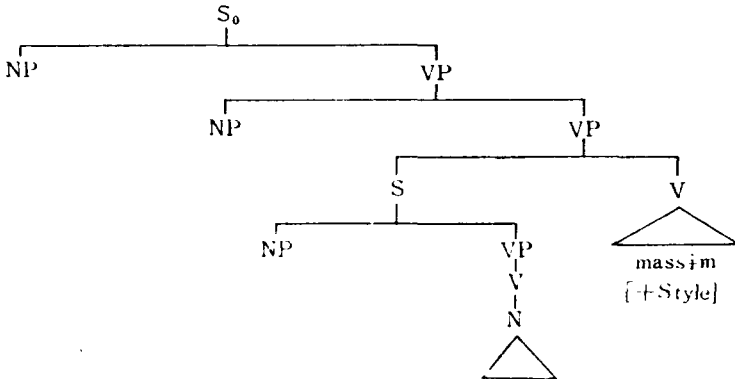
교육어에서의 “입니다”는 표현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이다. 제주도 방언에서의 {massim}도 이와 동일한 직능을 가진다. 그러나, 이를

(69) a: 이거 얼마말(말씀)입니까?

b: 백 원말(말씀)입니다.

로 고쳐 보면 일상어로서는 어색한 감이 있으나, 심립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 될 수가 없다. 결국 양자가 동일할 수는 없으나, 이는 방언의

<그림 16>



특수성으로써 취급 할 수 있을 것이며, 일 면 동일 언어(즉, Korean)로서의 유사성도 간과할 수 없다. 앞 장들에서 우리는 ‘요’와 ‘말입니다’가 자유로히 변사와 배합 되어 표현 형식을 결정함을 보아 왔다.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<그림16>과 같다.

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예들을 더 들어 보겠다.

- (70) {mulmakkamassim\}
- (71) {malmassim/}
- (72) {tilə ollinin kəmassim\}
- (73) {sənpemassim/}

4. 2. 완형문 + {massim}

- (74) {hakkyoi kamcumassim\}
- (75) {papil məkəmcumassim/}
- (76) {halmaŋi poatcumassim\}

이들에서 {massim}을 제거하면,

- (77) {hakkyoi kamcu \}
- (78) {papil məkəmcu /}
- (79) {halmaŋi poatcu \}

로 제주도 방언에서는 [+Style, +Familiar]형으로서 교육어의 “정식 용어의 반말”에 해당 된다.

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른 표현 형식과도 배합이 된다.

- (80) {ol khiyəmassim \}
- (81) {mo hayəmassim /}
- (82) {məkəssəmassim \}
- (83) {kəmcililamassim\}
- (84) {kwitkatinkamassim/}

이들에서 {massim}을 제거하면,

- (85) {ol khiyə\}
- (86) {mo hayə/}
- (87) {məkəssə\}
- (88) {kəmcilila\}
- (89) {kwitkətinka/}

와 같이 다른 표현 형식이 된다.

위에서처럼 {massim}은 다른 표현 형식의 서술형, 의문형에 두루 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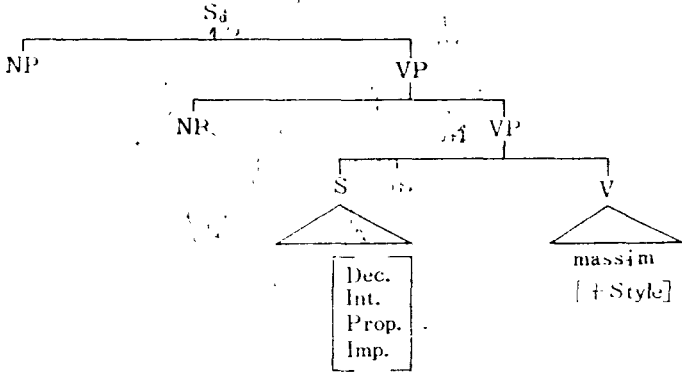
교육어의 '받입니다', '요'와 제주도 방언 (massim)에 대하여 (17)

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명령형과도 배합 된다.

(71) {kalamassim\}

(72) {iti polamassim\}

<그림 17>



4. 3. {명사 구절} + {massim}

명사 구절이나 부사 구절과 배합 되어 쓰이기도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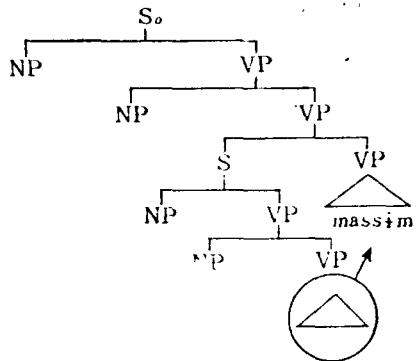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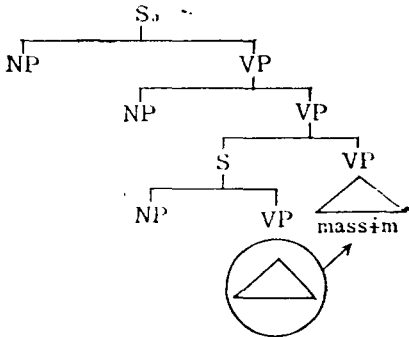
예를 들면,

(90) {ollaesomassim\}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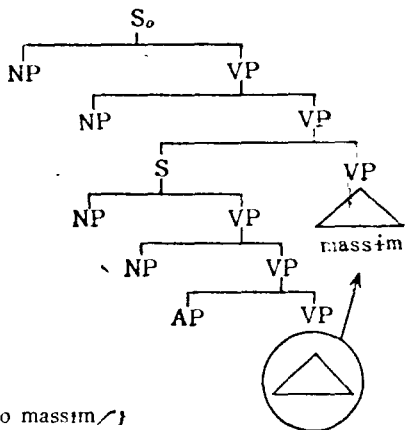
(91) {salimkwamassim\}

<그림 18>

<그림 19>



<그림 20>



(92) {nasaneto massim /}

(93) {ukimilomassim \}

(94) {santele massim /}

이들도 앞의 ‘말입니다’와 ‘요’가 명사구절이나 부사구절과 배합 되어 종결형을 만들므로서 동사구절을 생략하는 경우와 동일하다.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<그림 18-20>의 세 경우가 될 것이다.

4. 4. 연결문 + {massim}

다음과 같이 연결형 접미사로 끝나는 문장들과 {massim}이 배합 되어 쓰인다.

(95) {sançe twecenmassim \}

(96) {məli phuləŋtənyənmassim \}

(97) {cweyəciminmassim /}

(98) {thataŋmassim \}

(99) {pəritħanimassim /}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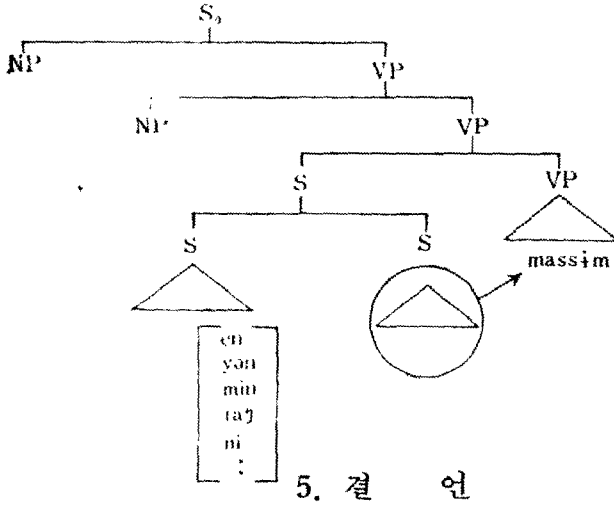
이것도 앞에서의 ‘말입니다’와 ‘요’의 적응과 유사한 것이다. 다시 말하면 연결형 접미사로 끝나는 문장에 {massim}이 배합 됨으로써 [+Stlye]의 표현 형식으로 종결 되는 문장이 된다. 그러나, 중요한 것은 이 때의 {massim}이 앞에서의 ‘말입니다’와 같은 심층 구조(underlying structure)를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, ‘요’와 같은 심층

교육어의 '말입니다', '요'와 제주도 방언 (massim)에 대하여 (19)

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. 곧, 복합문 중에서 뒷 부분의 문장을 생략하고 연결문을 중결 시키는 적능을 한다는 것이다.

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.

(그림 21)



이상 고찰해 본 '말입니다', '요'와 {massim}을 배합 관계, 적능, 의미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.

(1) 배합 관계

2 \ 1	명사구절	부사구절	연결문 ₁	완형문	명 사	연결문 ₂
말입니다	+	+	+	+	+	+
요	+	+	+	+	+	+
massim	-	+	+	+	+	-

(2)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합 관계, 적능에 있어서는 제주도 방언의 {massim}이 '말입니다', '요'와 비슷하다. 의미상으로는 '말입니다'가 복잡한 양상을 가지는데 비하여, '요'와 {massim}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 아니 하고, 오히려 표현 형식을 바꾸는 역할이 두드러진다.

음운, 형태상으로는 '말입니다'와 {massim}이 유사하나 그 심층 구

(2) 직능과 의미

1	직능과 의미 2	표현형식 의 변이	강조의 춧집	화법의 변이	문장중결	동사구설 의 생략	문장의 생략
명사구설	말입니다		+		+	+	
	요				+	+	
	massim				+	+	
연결문 ₁	말입니다		+		+		+
	요				+		+
	massim				-		+
완형문	말입니다	+		+	-		
	요				+		
	massim				+		
명사	말입니다				+		
	요				+		
	massim				+		
연결문 ₂	말입니다				+		
	요				+		
	massim	-	-	-	-	-	-

조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면 상이하하다. 이는 원래는 같은 말이었을지라도 공간적, 시간적인 요인으로 각기 다른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언의 특수성으로 풀려야 할 것 같다.

□ 참고 문헌 및 자료 □

〈참고 문헌〉

金 亨鎔：韓國方言研究，서울，서울 大學校 出版部，1974.
 남 기실：“完形補文典考”，語學研究，第9卷，第2號，서울，서울大，語學研究所，1973.
 朴 秉洙：“韓國語 名詞補文 構造의 分析”，문법연구，제1집，서울，문법연구회，1974.
 박 창해：한국어 구조론 3，서울，연세대 한국어학당，1967.
 小倉進平：朝鮮方言の研究，下卷，東京，1944.
 최 현배：우리말본，서울，정음사，1936.
 玄 平孝：濟州道方言研究，서울，楠研社，1962.
 Chomsky, Noam: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, Cambridge, Mass.: MIT Press, 1965.
 Lee, Hong-Bae: A Study of Korean Syntax, 서울, 범한어적주식회사, 1970.
 Park, Byung-Soo: “The Korean Verb ‘ha’ and Verb Complementation,” 語學研究，第10卷，第1號，서울，서울大，語學研究所，1974.
 Park, Chang-Hai, Pak, Ki-Dawk: Korean I. 서울, 연세대, KIL, 1974.
 Rosenbaum, Peter: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, Cambridge, Mass.: MIT. Press, 1967.

〈자 료〉

진 성기：南國의 民話，濟州民俗文化研究所，1968.
 南國의 巫歌，濟州民俗文化研究所，1968.
 南國의 禁忌語 研究，濟州民俗文化研究所，1973.

연세 방언 연구회 소장 녹음 테이프,

L(언어학 자료)

JJ(제주도)

테이프 번호	지 명	제 집년도
0100. 1, 2, 3, 4, 5	세주시	1968
0203. 1, 2, 3, 4	성산면	1968
0204. 1, 2, 3	남제주군, 서귀포읍	1968
0206. 1, 2, 3, 4	중문면	1968
0301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	북제주군, 구좌면	1974
0306. 1, 2, 3, 4	한림면	1968